VR·시민감독영화…미디어로 떠나는 특별한 외출

13~17일 ‘미디어 별곡’ 축제
16일 호남지역 워크숍 개최
장애인 1대1 맞춤교육도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미디어 봉사단의 활동 모습.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제공〉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지역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2017시청자주간행사 – 미디어별곡’을 개최한다.

‘같지만 다른, 평범하지만 특별한’이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평범한 시민들이 일궈가는 소소한 일상과 미디어 교육의 만남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지역 시청자 누구나 미디어교육과 체험, 방송제작 시설 및 장비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 기반 공공시설인 만큼 이번 행사들 모두 지역 시민들의 무료 참여가 가능하다.

행사 프로그램은 총 4개로 운영된다. 먼저 14일부터 16일까지 ‘VR로 즐기는 미래 미디어’프로그램이 진행된다. VR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체험이며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참여 가능하다.

이어 16일에는 ‘호남지역 미디어센터 워크숍’ 행사가 열린다. 호남지역 미디어센터 직원 및 강사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센터 간 네트워킹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미디어센터 간 사업에 대한 공유 및 연계 확대를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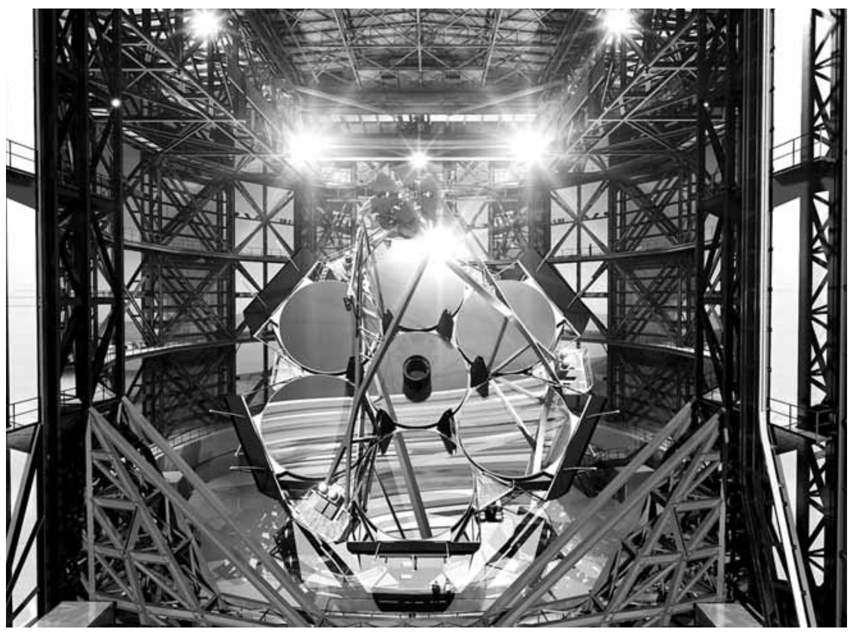
워크숍에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동구영상미디어센터, 목포MBC시청자미디어센터,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전주MBC시청자미디어센터,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등 총 7개 미디어센터 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행사도 마련된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재능기부 동아리인 ‘미디어봉사단’이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애인 대상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진행한다. ‘미디어 봉사단의 특별한 외출’이라는 주제로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의 장애인 15명을 초청해, 광주센터의 미디어봉사단과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1대1 맞춤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가 발굴한 시민감독 3명의 작품이 광주독립영화제에서 상영된다. 17일 오후 2시40분 광주극장에서 모두 3편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우리 곁의 평범한 시민들이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 가을, 사람향기 가득한 다큐멘터리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7시청자주간행사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전국 7개 시청자미디어센터와 동시에 진행하는 2017시청자주간행사의 일환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2-650-0320)로 문의하면 된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11개 기관이 참여해 만드는 거대마젤란망원경 완성 모습 예상도. 〈한국천문연구원 제공〉

한국, 최대 광학 망원경 제작 참여

가장 먼 별·은하 관찰
2026년 정상 가동 목표

한국천문연구원을 비롯해 세계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거대마젤란망원경기구(GMTO)가 사상 최대의 광학 망원경인 거대마젤란망원경(GMT) 5번째 반사경 제작을 시작했다.

최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에 따르면 GMT는 지름 8.4m짜리 반사경 7장을 벌집 모양으로 연결해 만든다. 전체 지름은 약 25.4m로, 역대 최대 규모로 허블우주망원경보다 최대 10배 선명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천문학자들은 GMT로 역사상 가장 먼 별과 은하의 빛을 관찰해 우주 탄생 초기까지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MT 반사경은 세 단계로 나눠 제작된다. 반사경 기본 형상을 만드는 주조(casting), 반사경 형상을 다듬는 성형(generating), 반사경 표면을 다듬는 연마(polishing)다.

유리블록 17.5t을 주조 틀에 넣어 1165도로 가열해 녹인 뒤 서서히 유리를 냉각해 성형·연마하는 과정을 거친다.

형체 제작에는 1년여, 연마 과정에는 3년가량이 걸린다. 이 같은 공정을 통해 거울 표면 굴곡은 사람 머리카락 두께의 1000분의1보다도 작은 정밀도를 갖는다. 반사경 재료로 쓰이는 유리블록은 온도 변화에 따라 크기·부피 변화가 극도로 작다.

현재 반사경은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에 있는 애리조나대학에서 제작하고 있다. 첫 반사경은 2012년에 완성했다. 이후 현재 4개의 반사경을 순차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완성된 반사경은 천문관측의 최적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 라스 캄파나스로 옮겨질 예정이다. GMT는 4개의 반사경을 먼저 장착해 2023년쯤 첫 관측에 나선다. 정상 가동 목표는 2026년이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국립광주과학관 3D 홀로그램 전시공간 구축 예상도. 〈광주과학관 제공〉

3D 홀로그램·증강현실 체험 도입

광주과학관, 시설 개선…교육숙박동 연말 착공 예정

국립광주과학관이 과학 교육 강화와 관람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과학관 시설 개선에 돌입했다.

이번 시설 개선은 전시물과 시설 개선 모두 진행된다.

관람객들이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곳은 상설전시관이다. 현재 국립광주과학관은 상설전시관 1관에 위치한 ‘소리빛’과 2관 1존을 새롭게 꾸미고 있다. ‘소리빛’은 파동이라는 특징을 공유하는 소리와 빛을 주제로 한 전시물이었지만, 3D 홀로그램을 활용한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특히 레이저 센서를 활용한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전시물이 될 것이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과학원리를 담고 있던 2관 1존은 최근의 과학기술 발달에 발맞추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생활의 변화를 체험하고 과학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드론,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는 기술들을 체험할 수 있다. 소리빛과 2관 1존의 전시물 개선은 오는 12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 천체투영관도 ‘Go into space’를 주제로 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다. 태양계의 행성, 혜성부터 다양한 성운까지 다양한 천체의 정보를 한 공간에 담았다.

전파체험관 역시 큰 변화를 맞이할 예정이다. 현재 개선이 진행 중인 전파체험관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증강현실 게임부터 동작 인식을 활용한 콘텐츠 등 전반적인 콘텐츠의 질을 개선한다.

이외에도 음계와 다양한 원소의 스펙트럼을 결합한 ‘노래하는 과학계단’, 노벨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세계의 도시, 노벨을 만나다’ 등 새로운 전시물들이 설치됐다.

또, 올해 말에는 도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숙박동이 착공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숙박동에는 천체관측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천체투영관, 스페이스 360등 다양한 전시물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매출 1위라면서…고가 요금제 늘리는 SKT

SK텔레콤의 3분기 무선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SK텔레콤은 요금할인에 따른 수익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천명했다.

일각에서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3분기 SK텔레콤의 무선 ARPU는 작년 동기보다 17원 늘어난 3만5488원으로 3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KT는 3만4608원, LG유플러스는 3만5316원이었다.

작년 3분기보다 ARPU가 늘어난 통신사는 SK텔레콤이 유일했다.

SK텔레콤의 ARPU는 2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태블릿 등 세컨드 디바이스(보조기기) 가입자가 늘며 과거보다 신뢰도가 줄긴 했지만, 통상 ARPU가 높으면 고가 요금제를 많이 팔았거나 유료 서비스 매출이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25% 요금할인으로 이통사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ARPU도 자연스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고가 요금제 확대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아예 처음부터 비싼 요금제를 팔아서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 – 203평**
  147-4, 11, 15번지 – 31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총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장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8억7천7백만원 (평당 170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9억9천6백만 (평당 70만원)

“무 인 텔”

콘도 / 리조트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5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 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예정)
- **요양병원, 연수원 등 용도변경 가능**

“타 물건과 교환가능”

주인직매 010-3605-5000